

고 독 한 발 자 취



—도서관 운영 체험기—

김 문 현
(진주시립연암도서관장)

■ 편집자주 ■

우리 나라의 도서관사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인 정리작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계속적인 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의 기본적인 시설이면서도 국민은 물론 관계 당국에서도 만족할 만한 인식과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에서 만남을 무릅쓰고 명실공히 한 문화의 산실로서의 도서관을 이룩하기까지의 당하고 부디껏든 생생한 체험의 기록을 담은 글이다. 지난 5월 14일~16일에 개최된 전국 공공도서관대회에서 피나는 노력의 체험기가 보고 되어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버려진 대상이기에 고독한 분투로 얻은 보람있는 보고였다.

사회의 요구가 있기 전에 도전이 앞서고 일을 이야기 하기 전에 필자의 신념과 행동과 의욕이 앞선다. 이 점을 필자는 먼저 독자 여러 분께 천만 송구하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활자화 한다는데는 여러 번 주저했다. 다만 이 글이 인식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새로이 도서관을 세우고 개척하려는 뜻있는 사람과 도서관 일선에서 분투 노력하시는 회원제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실는 것 입니다.

1. 시장실의 녹크

공원에 자리잡은 조그만 문화원 건물이 헐리고 철근 콘크리트 새 도서관 건물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1968년 10월 어느 날 오전, 망서리는 마음으로 시장실의 문을 녹크하고 시장실에 들어섰다. 넓적한 시장실 사면에는 각종 차아트와 진주시의 발전설계도가 눈에 띄었다. 김중구 시장의 친절한 영접을 받으며 소파에 앉자마자 “시장님께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우선 말문을 열었다. “지금 공원에 짓고 있는 도서관의 운영책임자로 저를 썩 줄 수 없겠습니까”

하고 당돌한 말을 불쑥했다. 그리고 시장님을 찾아온 동기는 교직생활을 그만 두고 청소년 문화사업을 5년간 해온 사람으로서 도서관 운영에 참여해서 보다 알찬 청소년 문화사업을 해보겠다는 순수한 나의 포부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김시장님께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솔직하게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 해주어서 고맙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었다. 교육청 회의실을 사무실로 빌려쓰면서 청소년문화사업회란 초라한 간판을 지켜오던 몇 일 동안 생각해 오던 속심을 모두 이야기하고 시장님의 격려적인 말씀을 듣고 나니 결과야 어떻게 되는 한결 마음이 가뉘고 결음이 가벼워 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매일 오후 한두번쯤은 으레히 공사현장에 나와서 마치 내집이나 짓는 양 이리 저리 돌아 보고 어둑어둑 해서야 공원 계단을 내려오곤 했다.

11월 12일 교육청 사무실에서 멍하게 천정을 보고 앉아있는 나에게 교육장님께서 부른다는 급사의 연락을 받고 교육장실에 들어서니 이성렬 교육장님께서 “김선생님 어찌 시장님과 의논 결과 김선생님이 도서관 운영을 책임맡도록 결정했으니 내일 준공식 때 일찍 나와서 거들어 주시오”하면서 굳은 악수를 해주셨다. 나는 너무나 갑작스런 통고에 잠시동안 멍한 상태에서 눈을 저그시 감으면서 나의 조그만 신념과 진실을 순수하게 받아드려 주시는 김중구 시장님과 이성렬 교육장님께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렸다.

2. 집지키기 56일

11월 13일 준공식 날은 시공보설과 시교육청 직원들의 준비로 많은 시민들과 도서관 설립기증자 구인회씨 향토출신 구태회 국회의원과 많은 내빈과 학생,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광장에서 성대한 준공식을 마쳤다. 오전 12시가 되어서야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나 혼자 멍그라니 남아서 두툼한 열쇠 문치를 들고 이방 지방을 다니면서 문을 잠그고 건물 구성구석을 살피며 빈집을 바쁘게 돌아 다녔다. 이렇게 도서관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꼬박 일숙직을 혼자 하면서 배영국민학교

창고에 두었던 문화원 도서실 배의 비품과 헌책 등을 손수레를 빌려서 국민학교 꼬마들의 고마운 협조를 얻어 이틀동안 운반을 완료하고는 혼자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매일 건물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욕십명씩이나 되었고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 찾아와서 청소를 거들고 출입하기 시작했다.

매일 찾아오는 단골 이용자 5, 6명의 협조를 얻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었다. 모처럼 깨끗한 도서관이 설립되고 나니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았고 야간까지 편의를 봐 달라는 애교섞인 요구가 나를 괴롭혔다. 도서관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줄도 모르고 뛰어 들었던 나는 매일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가 가득차면 무언가 보람을 느끼면서 어리석게 그들의 요구대로 무리하게 문을 열어주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혼자서 그런 모험을 했는지 아찔한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그때 단골 이용자가 자진해서 청소나 건물관리에 협조가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소로부터 바닥 청소애 이르기 까지 청소용구 구입에서부터 석유 구입에 까지 혼자서 바쁘게 쫓아 다니는 동안 체중은 줄어 가고 시간은 가는 줄 모르게 빠르기만 했다. 68년 그름밤을 숙직실에서 보내고 69년의 새해를 숙직실에서 혼자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고독감을 느꼈다. 곧 직원을 보낸다는 시청쪽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에 쓰던 도서관 장부나 열람표 등을 뒤적이면서 정식 개관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 주먹구구식 준비를 했다. 1월 7일 시에서 보내온 세사람을 교육청에 안내하여 교육장님께 인사시키고 1월 9일 4명의 직원으로서 책없는 도서관을 그래도 정식개관을 했다.

3. 미운 오리새끼 시절

시에서 세사람의 직원이 왔다. 발령은 교육청에서 받았다. 모두가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라 능력없는 나로서는 통솔하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혼자서 동분서주하던 2개월을 생각하면 매일 밤 숙직을 하지 않게 되어서 좋았다. 나도 도서관 업무가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새로운 직원들은 도서관이란 곳에 더욱 생소한 사람들이었다. 시청과 교육청을 왔다 갔다 해도 도서관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고 잘 아는 사람도 없었다. 예산도 충분히 적기에 지급되지 않았고 완전히 행정적인 불모지 속이라 고독한 창의적인 노력없이는 도서관은 완전히 그 기능이 마비될 슬픈 현실속에 있음을 차츰 알게 되었다. 시청이나 교육청에도 도서관운영에 밝은 사람은 없었고 준공식이 지난 후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새로운 직원들도 기껏 신문을 보면서 건물이나 지켜주는 정도였다. 나는 밤이면 잠을 못이루었고 멧모르고 도서

관에 뛰어든 것이 후회되기 까지 했다. 2개월간 밀렸던 적은 봉급을 뒤늦게 받아 쥐었을 때 더 한층 허전한 생각이 들었다. 직원이 늘었지만 혼자 있을 때가 마음이 편했고 일에 보람을 느끼던 때였다. 다수의 직원이 생기니 직원 분위기관게 있었고 지도체제가 확립되지 않은데다 연평적인 헨디켈 때문에 나는 미운 오리 새끼 마냥 고독한 분투를 해야만 했다. 도서관 이용자의 눈에는 내가 마치 소사처럼 보일 정도로 변소 청소를 도맡아 해야만 되었다. 편리한 수세식 변소가 처음에는 오히려 관리에 불편했고 산뜻한 알미늄 샷슈 창문도 합부로 여닫는 이용자들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만 했다. 별로 창의적인 일에 손댈 겨를이 없어 내부시설, 비품 마련의 살림준비에 항상 시내를 돌아 다녀야만 했다.

4. 대답한 모험

책 없는 도서관 문을 열고 공부장소로만 제공하는 도서관 지키기 신세가 차츰 부끄러워졌고 책을 찾는 이용자에게 답변할 말이 없었다. 상점을 차려놓고 상품없는 빈 진열장을 들여다 보고 한숨 짓는 가난한 상점주인 신세가 되었다. 도서구입애산도 책정되지 않은 채 추경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때까지 기다리자면 빨라도 6월은 가야 해결될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서점을 경영하는 동지를 찾아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책을 기증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구입도서목록을 작성하는데로 조급색(10여 차례) 한 것이 대금이 무려 70여만원을 상회했다. 밤 새워 도서분류 책자를 뒤적이며 독습하여 이틀 날이던 서문 분류작업애 손을 대고 하였다. 1개월 동안의 도서구입 및 분류 작업 끝에 2천여권의 장서를 정리하고 자신없는 목록카드를 만들어 3월 5일 부터 관내대출을 실시했고 격증하는 이용자의 소리를 받아 들여 3월 25일부터는 야간 개관을 실시했다. 몇명안 되는 직원들은 파로운 근무애 불평이 일기 시작했다. 초창기의 도서관으로서 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용자를 위한 봉사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빈약한 시설, 비품 등을 보완하며 가능한 한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마침 도청의 정기 총회에 참석을 위해 상경한 기회애 서울시립중로도서관을 견학하고 얻어 온 참고자료를 기초로 계장부 제카아드를 만들고 도서관의 내부체제를 다듬으면서 5월에 들어 관외대출을 실시했다. 어린이 노래자랑 공개방송장소로 도서관을 제공하고 상품을 본 사업회에서 제공하는가 하면 야간에는 방한칸을 비워 교육대학 엘리트씨클의 힘을 빌려 야간공민학교도 개설 운영하면서 부터 도서관이용자가 차츰 늘기 시작하여 많을 때는 오욕백명이 넘어 줄을 서고 기다리며 되돌아 가기도 했다. 급사 하나 없이 별로 부지런하지 않은 선배 직원을 모시

고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도 도서관 직원의 자질 향상과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고심을 하면서 관계 법률을 찾아 보고 하며 관계 요리에 뛰어 다니며 애쓴 보람으로 추경예산에 야근수당 책정이 반영되고 약간의 봉급의 인상과 급사 하나를 얻는데 성공했다. 6개월간 못준 도서대금이 80여만원으로 늘어났고 이 이상은 도서구입비 확보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이없는 일이었고 교육청과 시청사이를 수십번 오고 가 보아도 별로 빠른 길이 없었다. 한 집에 늙은 이가 돌이 있으면 서로 죽기 바란다는 속담대로 자율적인 협조체제가 되지 않은 행정기관의 양립은 모든 것이 비능률적이었고 모순이 많았다. 이것이 감독관청의 이원화로 인한 도서관 발전의 크나큰 저해 요인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예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청, 교육청을 뛰어 다니던 자체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도서관에 붙어 있으면 예산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이런 딱한 상황속에서 시청, 교육청, 도서관사이를 무수히 왕복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다. 도서관 자체의 주체성의 확립, 도서관 운영자의 주체적인 능력과 영향력 없이는 시청, 교육청의 실무관리의 시너로 굽신거려야 한다는 지금의 처지라는 것이다. 시민들과 유지 및 사회 각 기관의 정성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능동적인 선수를 쳐야 한다는 뱃심 경영론의 자세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우직한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매월 도서관 운영현황을 프린트 해서 각기관 유지 또는 일반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신문, 방송을 통한 도서관 PR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유력한 동지들을 통하여 간접원호사격을 하도록 했다. 시청과 교육청은 도서관조례문제를 두고 견해차이로 불협화를 이루고 그 사이에 낀 도서관은 의가 좋지 않은 부모사이에서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되어 갔다. 도대체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이란 게 어째서 이토록 탄생의 초기부터 뼈아픈 진통을 겪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니 후진국의 비애가 울화가 치밀도록 마음을 아프게 했다. 도서관 경영자가 확고한 개척자적인 신념과 독창적인 경영관 없이는 이런 초창기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목표설정이 확실해 졌을 때는 합리적인 방법론이 문제이며 이러한 방법론의 발견도 확고한 신념과 목표설정에 따른 부수적인 수확이라는 평소의 자기나름의 철학을 도서관 경영을 통해서 실험해 보고픈 장난끼 섞인, 아니 절실한 충동이 치밀어 올랐다.

5. 반항하는 사생아

나는 사표를 써서 호주머니에 넣고 소신껏 일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뜻있는 시민들이 도서관편이 되어 주

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행정체계의 불모지적인 여건속에서도 반항하는 선인장처럼 굴레없는 성난 말처럼 오직 도서관 육성을 위한 미치광이가 되어 오히려 부조리한 여건을 역이용하여 도서관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슨 일이고 사람이 한번 결정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지 자기대로 일단 마음과 결심이 선 후에는 이상한 저력이 자기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다. 도서관공부를 밤이면 책자를 뒤적이면서 익혀야 했고, 마스크에 종사하는 동지들이나 사회취업인사를 만나서 초창기 도서관의 어려운 여건을 이야기 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먼저 시장실문을 다시 누크하여 도서관은 좌천당한 사람들의 대기소나 안일한 근무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먼저 항의를 했고 도서구입비의 책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청에 가서는 도서관현장을 시찰하고 감사를 하거나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조그만 예산이라도 있으면 부족한 비품이나 장서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도서관 근무에 별 뜻이 없는 2명의 직원은 자기 희망대로 원대부귀를 추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사면초가가 된 속에서 고군분투 하는 고독한 동키호테가 되어 자기나름대로의 계획을 하나 하나 진행해 나갔다. 10월 들어 차츰 변혁이 이루어 지기 시작했다. 우선 직원 2명을 자기 소망대로 시청으로 되돌려 보냈고, 젊은 친구들을 급한대로 대치했다. 도서관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정성적으로 지원해 주시던 시장님이 도 내부국장으로 영전이 되셨다.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도서관에 관계되는 시청과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의 변동이 너무 많았다. 교육청 관리과장이 세번째 바뀌고 경리계장이 세번째, 교육장이 두번째, 시기회계장이 두번째, 시장님이 두번째, 감독기관의 관계인사는 이렇게 많이 바뀌고 직원마저 2명이 모두 교체되었다 바뀌지 않은 것이라곤 무력한 나 혼자였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도 다시 생각하면 좋은 여건으로 역이용 될 수도 있었다. 어쩌면 바뀔수록 도서관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정상패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동은 지금은 도서관을 위해서는 결코 불리한 여건은 아니었던 내 나름대로의 역설적 신념을 다져보는 것이었다.

6. 겨울앞에 서는 심정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서관 조례문제로 인한 양관청의 분쟁은 월남전처럼 쉽게 결말이 나지 않았다. 건국공공도서관대회라는 힘에 겨운 행사는 다가오고 예산은 우리가 제시한 안대로 책정되지 않았다. 도서관 대회 5일전에 교육장님이 바뀌었다. 11월에 오신 새 시장님과 5월 9일 오신 새 교육장, 중순경에 바뀐 시기회

계장 등 70년대의 도서관 후원자는 새 멤버로 바뀌었다. 5월부터 교육청을 감독관청으로 하던 도서관은 진주사에서 직접 육성지도에 손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행정적 사무적 이관과 인제가 서서히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공공도서관대회는 예정대로 진주에서 열렸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도서관이란 구호는 1년 5개월 동안의 진주시립연암도서관이 지향해 온 유일한 경영목표였고 이 목표를 향한 순수한 봉사체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음의 파장운동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 4월부터 각종 독서씨클이 조직되고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월요음악회나 일요그림회 BBS승공회 등의 자발적인 씨클의 조직운영은 도서관발전을 위한 원외후원단체로서 차츰 그 면모를 갖추고 충실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고 진주시내의 각종 청소년단체가 서서히 도서관을 중심으로 질서있는 활동체제가 정비되고, 진주 진양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진주시장)의 사무국 기능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문화사업회의 일을 맡으므로써 명실공히 도서관은 청소년 씨클활동의 중심적 센터가 되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한 전문 연구 기능을 다하게 된 것이다. 제9회 전국공공도서관 대회는 초창기의 당 도서관의 걸어온 발자취를 거울앞에 비추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좋은 점을 더욱 북돋아 주는 자극제가 되었고 용기와 격려와 체적을 준 우경있는 대화의 광장이었다. 대회경비가 시예산에 반영되었어도 아직은 교육청으로 전입되어 지출되는 단계이므로 아직껏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단돈 10원도 지출할 수 없는 여건속에 돈을 쥐지 않고도 행사준비의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시민들의 정신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가 도서관발전을 위한 밝은 전망을 예보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골닥쳐올 밝은 내일을 위해 현실적인 용기가 샘솟은 것이라고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회고 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발전은 외적인 여러가지 여건의 불리함에도 저해요인이 있겠지만 그 도서관의 발전은 그 도서관 운영자나 직원의 협동적인 능력의 증화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제 직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 처우개선을 위한 대내적인 경영과 인간관련의 연구 개선에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내용과 형식이 조화되지 않는 단체나 기관은 생명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대로 이제 능력있는 도서관인의 이미지를 시민에게 심어주는 제2단계의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협조도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협조도 도서관인에 대한 사회의 제인식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실효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도서관직원을 도서관 강습회의에도 정식교육을 위해 각종연수회에 참여 시키는 것도 이러한 목적에 따른 것

이다. 뜻있는 시민들의 자진 참여와 협동은 도서관 직원들의 정신적인 자각과 자발적인 노력이 분위기를 조성했고, 스스로 연수하고 노력하는 직원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7. 정신력의 기적

한알의 밀알이 썩으면 수천 수만의 새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는 현실적인 경제원칙 경영 이론에도 적용되며 도서관경영에도 적용치 못하란 법은 없을 것이다. 신념과 인내와 노력이 있는 곳에 문제해결의 열매는 있었다.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가꾸는 농부의 경건한 자세로 임한 도서관 경영은 차츰 그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했고 정신력의 기적은 결코 하루 아침에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월요음악회 회원은 기계없는 도서관에 매일 월요일이면 자기 음반 테코드를 운반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감상권을 보급하여 건축기체를 사들이는가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일요그림회가 발족하고 BBS 직업청소년들의 자치적인 조직 JRC, 걸스카울 등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도서관을 두드리며, 시 발전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시직원이 도서관 문을 두드리고 각종 강습회 등의 개최를 부탁하고, 어려운 점을 상의하려는 시민들의 내방이 잦아 졌다. 필요와 수요가 격증할 때 발전의 신호는 울린 것이며, 도서관은 이제 시민의 생활과 마음속에 그 절실한 필요성과 아쉬움이 서서히 느껴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이 공감은 언젠가는 전체 시민의 마음에 공명 공감운동을 일으키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도서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파역을 맡아야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기관과 기관 사이에 개인과 사회를 잇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재자로서 해야하며 시민들의 상담자가 되어가고 있다. 조국의 근대화도 경제발전에 앞서 정신의 근대화가 선행해야 하듯 도서관의 발전도 도서관경영론의 근대화를 통한 도서관인 자체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일대 변혁이 이루어지고 이 변화의 영향력이 시민들에게 전염 공감되어 명실공히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신념의 마력이 정신력의 기적을 가져오고 이러한 내적인 원동력이 가동할 때 외적인 현실여건의 개선 발전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초점을 도서관계 자체내에 아니 도서관인 자신에게 돌리는 자세는 나 혼자만의 체림이 아니라고 믿는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결코 밖에 있지 않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평범한 격언을 도서관 경영을 통하여 배울수 있었다는 데서 남 모르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험난한 도서관계 진로 개척을 위해 결코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더욱 굳게 하면서 두서없는 도서관경영 체험기를 끝맺읍니다.